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음 9월 21일) 제19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고교 전면 무상급식 전북도가 주도해야”

▶ 이상현 도의원 촉구

“농어촌지역 학교 한정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도, 25% 급식비 지원율”



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가구 소득수준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확실적인 전제하에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접근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상현 의원은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급식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25%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 현황을 근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원 소요를 보면, 전주시는 2만15798명에 75억9000만원, 군산시는 8763명에 25억8000만원, 익산시는 9426명에 27억7000만원, 남원시는 7억7000만원, 김제시는 5억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8일 농어촌지역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5:5 재정분담을 통해 읍면 지역 소재의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현재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은 정읍시를 포함한 9개 시군으로, 정읍시는 도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 예산으로 급식비 50%를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고,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단위 지역으로 아예 도시고등학교가 없어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한지의 세계화를 주도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전주 전통한지’ 세계문화유산 보호 나섰다

김승수 시장,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방문  
아프리카 분쟁국가에 보낼 한지족자 32개 전달  
교육협력 프로젝트 내용·분쟁지역 문화유산 담아

전주시가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한지를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한지 제작 족자에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말리의 아스키아 무덤, 말리의 고대도시 젠티 등 인류가 지켜야 할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세계문화유산들이 소개됐다.

시가 기증한 전주한지 족자는 유네스코를 통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보내져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종교전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고대 예술품과 문화 유적지 등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향후에도 유네스코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주한지 족자와 노트 등을 제작해 전달하는 등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파인 에두아르드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은 말리 뿐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됐다”며 “전주시와 유네스코가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 아프리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는 이미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투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복원에 활용되는 등 그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지의 세계화를 주도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오늘은 소방의 날’ 도소방본부 유공자 포상

제55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기념해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명과 의용소방대원 3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북조근정훈장에 전북소방본부 박진선 소방정 ▲대통령표창에 전주완산소방서 박재균 소방령, 전주완산소방서 정용석 임실남성의용소방대장 ▲국무총리표창에 전북소방본부 김승수 소방령, 군산소방서 김삼섭 소방령, 남원소방서 진한수 순창남성의용소방대장 진한수, 부안소방서 정점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정부포상을 수상한 이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검찰 “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썼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비물수수와 국고손실 과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 중이다”라며 “비자금 관리와 사용방식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그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수십억원의 자금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건넸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상납했는지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뉴스1

### 매일 INDEX

- 2면 - 양심적병역거부자형사처벌 불가피
- 3면 - 트럼프, 김정엔에 비핵화 촉구
- 6면 - 자영업자 영세성 심화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먹거리!

## 가을에도 역시 단풍미인쇼핑몰입니다.

**7080 추억여행 팍파티!**  
2017. 11.11(토)~12(일)

●첫째 날 일정  
정읍농경문화체험관 도착(12시 한) - 중식(추억의 도시리) - 내장산 관광 - 석식 - 개막식(인사말씀) - 어울미당 - 공연 및 레크레이션 - 자유평간 및 취침

●둘째 날 일정  
기상 - 조식 - 체험행사 - 중식 - 해산

●장 소  
농경문화체험교육관 및 체험농가

●문의 처  
063)539-6263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